



우리 수출을 둘러싼 세계경제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

금년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낙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선진국 및 신흥시장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글로벌 리스크가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. 미국 양적완화 축소 확대, 일본 소비세 인상, 유로 지역 저물가 등 선진국 리스크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 성장 둔화,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,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신흥시장 리스크는 세계경제 회복세 및 우리 수출 성장세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. 세계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리스크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나갈 필요가 있다.

1 최근 세계경제 동향

□ 최근 세계경제는 지난 몇 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 시현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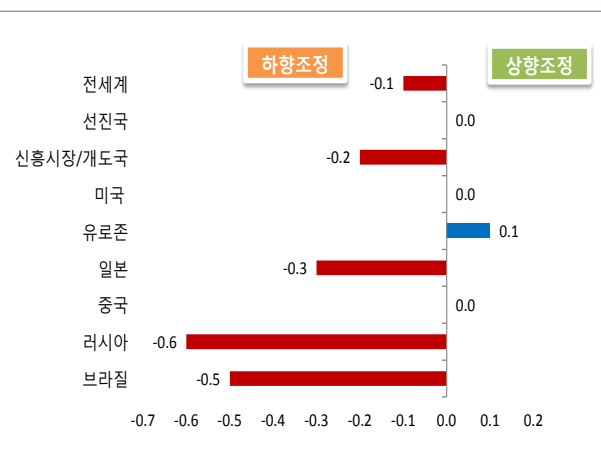
○ IMF는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0.6%p 상승한 3.6% 성장할 것으로 전망

- IMF는 4월 경제전망 수정치 자료에서 선진국은 기존 경제성장 전망치(2.2% 성장)를 유지한 반면 신흥시장은 0.2%p 하향한 4.9%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신흥시장 대비 선진국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

주요국 경제성장 전망

	(전년비, %)			
	2012	2013	전망치	
			2014	2015
전세계	3.2	3.0	3.6	3.9
선진국	1.4	1.3	2.2	2.3
미국	2.8	1.9	2.8	3.0
유로존	-0.7	-0.5	1.2	1.5
일본	1.4	1.5	1.4	1.0
신흥시장/개도국	5.0	4.7	4.9	5.3
중국	7.7	7.7	7.5	7.3
러시아	3.4	1.3	1.3	2.3
브라질	1.0	2.3	1.8	2.7

경제성장 전망치 조정



자료: IMF, World Economic Outlook(2014.4월)

주: 2014년 1월 전망치 대비 4월 전망치 증감(%p)

□ 세계무역기구(WTO)는 세계경기 호전에 따라 금년 세계무역도 전년대비 4.7% 증가하며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

○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가 신흥국 수출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세계교역이 전체적으로 둔화됐으나 금년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라 세계무역이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기대

– 금년 신흥시장 대비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“선진국 경기 회복 → 선진국 수입 수요 증가 → 신흥시장 및 개도국 수출 증가” 등의 경로로 세계무역 호조세 견인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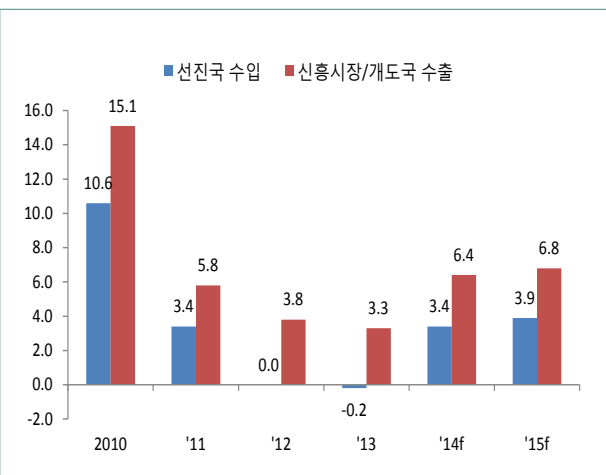
– 세계무역기구는 금년 선진국 수입이 지난해 0.2% 감소에서 3.4% 증가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신흥시장 수출이 지난해 3.4% 증가에서 금년 6.4%로 크게 증가하면서 세계무역이 전년대비 2.6%p 증가한 4.7%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

세계 상품 무역 전망

	(전년대비, %)			
	2012	2013	전망치	
			2014	2015
전세계	2.3	2.1	4.7	5.3
수출	2.4	2.4	—	—
선진국	1.1	1.5	3.6	4.3
신흥시장/개도국	3.8	3.3	6.4	6.8
수입	2.1	1.8	—	—
선진국	0.0	-0.2	3.4	3.9
신흥시장/개도국	5.1	4.4	6.3	7.1

주: 물량 기준
자료: WTO(2014.4월)

선진국 수입 및 신흥시장 수출 추이



주: 2014년 1월 전망치 대비 4월 전망치 증감(%p)

□ 금년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낙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선진국 및 신흥시장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글로벌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

○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안정적인 성장세를 낙관하기에는 글로벌 리스크가 도처에 산재해 있음

– 미국 양적완화 축소 확대, 일본 소비세 인상, 유로 지역 저물가 등 선진국발 리스크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 성장 둔화, 신흥시장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신흥시장발 리스크의 전개 양상에 따라 세계경제 회복세 및 우리 수출 성장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

2

선진국發 세계경제 리스크 평가

① 미국 양적완화 축소 확대

-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확대는 미국경제 회복세를 나타내는 방증이긴 하나 동시에 신흥시장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로 작용
 - 최근 미국경제는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, 고용시장 안정, 주택시장 호조 등 전반적으로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중
 - 미국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섬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미 연준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은 금년내 종료될 것으로 예상
 - 미 연준은 금년말까지 예정된 다섯 차례의 FOMC 회의를 통해 매번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축소를 단행하여 연내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
 - * 월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12월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료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9월 조기 종료를 예상하는 투자은행도 있음
 - * 향후 출구전략 시나리오는 (1단계) 양적완화 축소, 재투자 중단, (2단계) 정책금리 인상(2015년 중순 또는 하순 시행 예상), (3단계) 보유자산 매각 등의 순서로 진행될 전망
 - 기본적으로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(tapering)는 미국경제 회복에 따른 정상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예상보다 빠른 미국경제 회복세로 테이퍼링이 가속화 되거나 조기 금리 인상론 대두시 불안요인으로도 작용 가능
 - 신흥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자본 유출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침체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연초 열린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으로 촉발된 조기금리 인상(2015.4월)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선진국으로의 자금회귀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

② 일본 소비세 인상

- 지난 4월 단행된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일본경제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인 소비 위축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
 - 최근 일본 경제는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한편 일본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소비,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등 일차적인 성과는 달성

- 유연한 재정정책(확장적 재정정책 + 재정건전화 정책 병행)을 기치로 내건 아베 정부는 최근 일본경제 호조세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및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해 소비세 인상(5%→8%)을 단행
 - * 일본 소비세 도입/인상 추이: 3%('89.4월, 도입) → 5%('97.4월, +2%p) → 8%('14.4월, +3%p) → 10% 검토('15.10월, +2%p를 경제상황에 따라 '14년말 결정)
- 시기적으로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적기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를 촉발했던 1997년의 소비세 인상 트라우마가 존재
 - 1997년 4월에 단행된 소비세 인상(3%→5%)의 경우 아시아 외환위기와 겹쳐 일본경제가 장기 침체로 접어들게 된 계기가 됨
 - * 일본 경제성장률(계절조정, 전기비%): 0.8('97.1분기) → -1.0('97.2분기)
 - * 일본 가계소비(계절조정, 전기비%): 2.1('97.1분기) → -3.5('97.2분기)
- 최근 경기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이 부진하다는 것도 소비세 인상 부담을 가중
 - 일본 정부가 주요 기업의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급 인상을 꺼려왔던 일본 대기업들이 2008년 이래 처음으로 기본급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임금 인상 소극적
 - * 토요타 및 혼다는 '08년 이후 처음으로 월간 1,000~2,700엔 임금 인상 단행
 - * 일본 게이단렌이 20개 업종 41개 회원사(종업원 500인 이상) 대상 조사결과(4/16일), 기본급 포함 임금인상률이 2.39%로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. 업종별 임금인상률은 제조업(2.50%), 기계금속(3.33%), 자동차(2.78%) 등으로 집계
 - * 반면, 금년 1월 일본상공회의소의 중소기업 3,000개사 대상 설문결과, 조사대상 업체의 1/5 정도만이 임금인상을 계획중
-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경제가 후퇴할 가능성은 낮으나 정부의 경기부양책, 수출증가, 국내 설비투자가 소비세 인상 여파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
 - 1997년 대비 소비세 인상전 가수요가 크지 않고 기업들의 과잉 생산설비 및 인력이 낮은 점,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 마련 등으로 일본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은 낮은 편¹⁾이나 소비세 인상이 중장기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일본 경제 회복세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

③ 유로 지역 저물가

- 유로 지역의 완만한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, 저물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음

1) 세부 내용은 장상식, 명진호, 류솔아, “일본의 소비세 인상에 따른 일본경제 전망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”, Trade Brief No.24 (2014.4.31.) 참조

- 최근 유로 지역 경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화, 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소비,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 중
- 다만 금년 3월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비 0.5% 증가로 4년래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4월에도 0.7% 증가에 그쳐 유럽중앙은행(ECB)의 물가관리 목표치 2%를 크게 하회
 -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여전한 생산능력 과잉이 에너지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도 유로 지역 저물가에 기여
 - *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(전년동기비%): 2.7('12.1월) → 2.0('13.1월) → 0.5('14.3월) → 0.7(4월)
 - * 유로화 환율 증감률(달러/유로, 전년동기비%): -0.5('12.12월) → 4.5('13.12월) → 6.7('14.3월)
- 유로지역의 저물가는 역내 취약국들의 상대적인 노동비용 하락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부담 증가, 소비 및 투자 부진 등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됨
- 특히 저물가가 디플레이션으로 발전할 경우 일본식 장기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
 - IMF는 유럽중앙은행이 미 연준과 같이 금리 인하, 채권 매입 등 확장적 통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라가르드 총재는 디플레이션을 “괴물(Ogre)”에 비유하며 단호히 맞서 싸워야한다고 강조
 - 경제전문가들은 가계와 기업의 물가하락에 대한 기대심리가 소비 위축을 불러와 경제 성장을 제약하면서 유로존이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

3

신흥시장發 세계경제 리스크 평가

① 중국경제 성장 둔화

- 금년 1분기 중국경제가 소매판매, 생산, 투자, 수출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에서 부진한 가운데 경착륙은 아니더라도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 증가
- 중국의 1/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비 7.4%로 2012년 3/4분기(7.4%)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2분기 성장률도 7%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경제 성장둔화 가능성 존재
- 전반적인 경기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기부양책 관련 중국정부의 미온적 입장으로 경기둔화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능성은 낮지만 금년 중국경제가 7%대 성장을 하회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

* 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정부는 금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7.5% 제시

최근 중국경제 동향

	2013					2014		
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연간	1월	2월	3월
경제성장률(전년동기비%)	7.7	7.5	7.8	7.7	7.7	7.4		
고정자산투자(전년동기비%)	19.3	18.6	18.5	18.2	20.2	17.9	17.9	17.6
소매판매(전년동기비%)	12.4	13.0	13.3	13.5	13.1	11.8*		
산업생산(전년동기비%)	9.5	9.1	10.1	10.0	9.8	8.6*		
제조업 PMI 지수	50.5	50.5	50.8	51.3	50.8	50.5	50.2	50.3
수출(통관기준, 전년동기비%)	18.3	3.7	3.8	7.5	7.8	10.5	-18.1	-6.6

*소매판매, 산업생산은 1~2월 통합 수치임

자료: 중국 국가통계국, 국제금융센터, CEIC

□ 특히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는 對중 원자재 및 에너지 수출비중이 높은 신흥시장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져 신흥국 경제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

○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對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신흥시장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전망

* 주요 신흥국 총수출 중 對중 수출 비중('12년, %): 칠레(23.3), 브라질(17.0), 인도네시아(11.4), 인도(5.1)

○ 특히 구리(칠레, 페루), 철광석(브라질), 석유(베네주엘라, 에쿠아도르), 대두(아르헨티나) 등 주요 원자재 수요 부진은 중남미 국가들에 악영향

*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률(2012년말 대비 2014.3월말, %): 알루미늄(-16.5), 구리(-16.3), 옥수수(-28.1), 대두(3.8), 밀(-10.4), 원당(-8.9), 두바이유(-3.1)

②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

□ 미 출구전략으로 신흥시장에 유입된 자금의 선진국으로의 회귀 및 신흥국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신흥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

○ 세계은행은 2009~2013년간 시행된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 조치로 신흥시장 자산 매입의 약 60%에 상당하는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추정

○ 연초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신흥시장의 환율 및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기도 했으나 옐런 미 연준 의장 부임에 따른 완만한 테이퍼링 기대와 신흥시장의 적극적인 금리 인상 정책 등으로 진정 국면

* MSCI 신흥시장 주가지수 변동률(2013년말 대비, %): -6.6(1월말) → -3.6(2월말) → -0.8(3월말)

* JP Morgan 신흥시장 통화지수 변동률(2013년말 대비, %): -3.5(1월말) → -2.3(2월말) → -0.8(3월말)

○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(인도, 인도네시아, 터키), 통화 위기(아르헨티나) 등을 겪고 있는 신흥시장의 자금유출 및 금융시장 불안은 여전히 위험요소로 남아 있음

-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신흥시장(30개국) 수출이 총 수출의 절반(51.6%)을 넘어선 가운데 신흥시장 중 고위험국(Edgy Eight)에 대한 수출 부진이 우려됨

- * 對新항시장 수출증가율(전년동기비%): 5.8('13) → 1.2('14.1~2월)
- * 對고위험국(8개국) 수출증가율(전년동기비%): -2.1('13) → 1.1('14.1~2월)
(※고위험 8개국은 인도, 브라질, 인도네시아, 터키, 남아공, 헝가리, 폴란드, 칠레 등)
- * 對고위험국(7개국, 터키 제외시) 수출증가율(전년동기비%): -4.7('13) → -3.3('14.1~2월)

③ 지정학적 불확실성

□ 금년 주요 신흥시장에서 총선 및 대선 등 선거일정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

○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 일관성 결여, 거시경제 안정성 우려 등이 염려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이 세계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이어져 세계무역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음

* 금년 주요 신흥국 선거일정 및 정치변수: 태국(2월 조기총선 무효에 따른 재총선 실시 예정, 현재의 잉락 친나왓 총리 해임 결정), 인도(5월 총선), 브라질(10월, 총선 및 대선), 인도네시아(4월 총선, 7월 대선), 터키(3월 총선, 8월 대선), 남아공(4월 총선) 등

○ 최근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정정 불안 지속으로 서방과 러시아간 힘겨루기 양상

- 미국, 유럽, 일본 등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고위 관료 및 유력 기업인사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, 자산 동결 등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하이테크 제품의 對러시아 수출 제한 결정(4/28일)으로 확대

-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對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대한 선결제를 요구하는 등 맞대응

○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러시아 제재 조치에 대해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 제한으로 반발할 경우 국지적 긴장상황이 세계경제 전체의 위협 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

- 과거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으로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위기를 경험

- 이후 유럽 국가들이 수입선 다변화, 역내 국가간 에너지 공급라인 구축 등을 통해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해왔으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편

* EU 28개국의 전체 에너지 수입 중 러시아 비중(2013년, %): 천연가스 20.2 (HS271111, 271121 기준), 원유 28.9 (HS270900)

* 유럽 주요국의 對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(2012년, %): 핀란드(100), 불가리아(100), 에스토니아/라트비아/리투아니아(100), 체코(100), 슬로바키아(99.5), 루마니아(86.1), 독일(35.7), 이탈리아(28.1), 프랑스(15.6), 네덜란드(11.2)
(자료: IEA, Eurostat, EIA(FT 2014.3.20. 재인용))

4

시사점

- 금년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및 신흥시장에 내재된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
- 미국 양적완화 축소 확대, 일본 소비세 인상, 유로 지역 저물가 등 선진국發 리스크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 성장 둔화,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,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신흥시장發 리스크들이 세계경제 회복세 및 우리 수출 성장세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



- 현재 진행형인 글로벌 리스크의 전개 방향과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음
- 각국 경제정책 당국자들과 주요 경제기구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세계경제가 갑작스런 침체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리스크 전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을 겪을 우려 존재
- 우리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신규시장 개척, FTA 활용 제고 노력과 더불어 기술 및 신제품 개발 등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

문의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 오세환 (6000-5184, sehwan@kita.net)